

■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5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 에 대한 논평 요약(2016. 2. 25)

※ 자세한 분석 자료는 내일 26일(금) 오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1인당 사교육비,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고치 기록”

- 박근혜 정부, 3년 연속 사교육비 증가
- 고등학교 수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4천원 증가
- 수능 수학 시험범위 축소, 수능 수학 절대평가 도입 등의 대책이 시급
- 고교 영수 증가 요인을 학교 방과후 선행금지 정책 탓으로 꼽는 교육부 진단은 잘못... 사교육기관 선행교육 금지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4만 4천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

▲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연속 사교육비는 증가함. 작년에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임.



▲ 사교육비 총 규모의 감소(전년 대비 2.2% 감소)는 전체 초·중·고 학생 수의 감소율 3.1%를 고려할 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사교육비 총액 >

(단위 : 억원)

학교급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초등학교	102,309	97,080	90,461	77,554	77,375	75,949	75,287
중학교	62,656	60,396	60,006	61,162	57,831	55,678	52,384
고등학교	51,294	51,242	50,799	51,679	50,754	50,671	50,675
총계	216,259	208,718	201,266	190,395	185,960	182,297	178,346

※기타 교육비(방과후학교, EBS교재비, 어학연수비) 제외

※교육부 보도자료에는 기타 교육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총 금액을 살펴보기는 어려움

※사교육비 총액 감소(2.2% ↓)는 학생수 감소(3.1% ↓)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 실질 사교육비는 산정기준을 일반적 분석 기준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줄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소비자 물가지수로 다시 계산하면 총 규모는 2.9% 감소하여 역시 초·중·고 학생 수의 감소율 3.1%보다 적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음.

▲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는 전년 대비 2천원이 줄었고, 수학은 1천원이 증가함.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모두 증가함.

일반교과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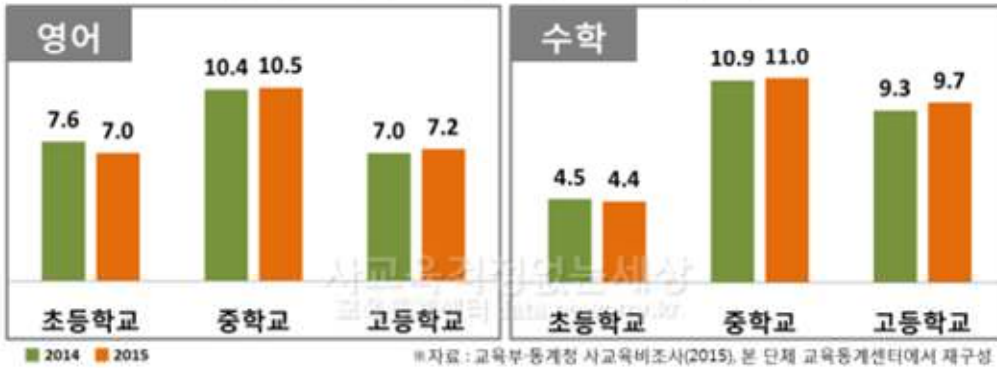
■ 영어 ■ 수학 ■ 기타(국어, 사회, 과학, 제2외국어, 논술)



※자료 : 교육부·통계청 사교육비조사(2015), 본 단체 교육통계센터 재구성

▲ 고등학교는 학교급 가운데 가장 큰 폭인 6천원(23.0만원→23.6만원)이 증가했는데, 그중 수학 사교육비 증가가 4천원(9.3만원→9.7만원)을 차지함. 이는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가장 큰 것을 반증하며, 과도하게 많은 수능 수학 시험 범위와 수학 절대평가 도입 등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함.

일반교과 중, 영어·수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단위 :만원)



▲ 전체 사교육비 대비 영어와 수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다소 줄었으나, 고등학교는 늘어남.

< 일반교과 중, 영어·수학 사교육비 총액 비교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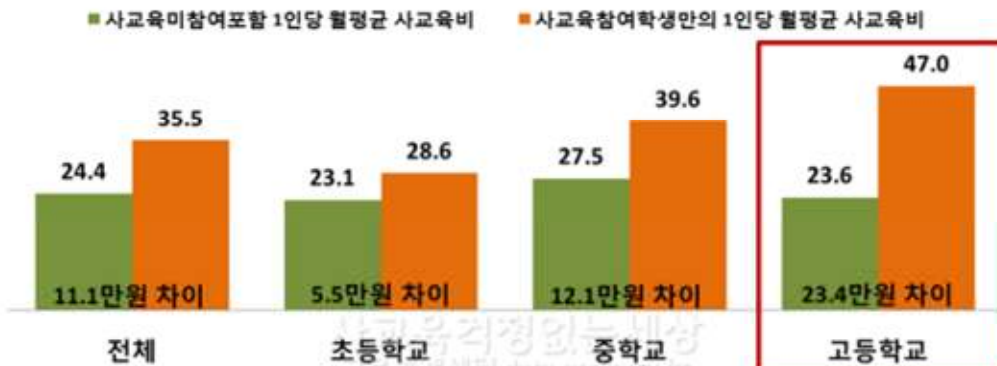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영 어	24,804	22,886	21,349	19,918	15,344	15,544
수 학	14,682	14,288	22,484	20,924	20,516	20,720
계(영어+수학)	39,486	37,174	43,833	40,842	35,860	36,264
전체 사교육비	75,949	75,287	55,678	52,384	50,671	50,676
전체 사교육비 대비 영어·수학 사교육비 비율	52.0%	49.4%	78.7%	78.0%	70.8%	71.6%

※자료 : 교육부·통계청 사교육비조사(2015). 영어·수학 사교육비를 발췌하여 본 단체 교육통계센터에서 재구성
 ※고등학교의 영어와 수학에 대한 비율은 전년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는 전년 수준으로 나타남

▲ 중학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교급 중에 가장 높은 27.5만원(전체 평균 24.4만원)의 부담을 안고 있음.

▲ 사교육비 통계는 참여하지 않는 학생까지도 포함하여 평균을 계산하여 그 비용이 크게 줄어 듦. 따라서 실질 참여 학생으로 계산한 비용은 큰 차이를 보임.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무려 23.4만원 차이가 남.

사교육 참여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차이 (단위 :만원)



※자료 : 교육부·통계청 사교육비조사(2015). 본 단체 교육통계센터에서 사교육참여 여부에 따라 환산하여 재구성

▲ 교육부는 고교 영수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학교 방과후 선행 금지 정책을 지적하고 이를 폐기하려고 하나 이는 잘못된 진단임. 오히려 사교육기관의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함.

2016. 2.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02-797-4044. 내선번호 509)
민유리 행정팀장(02-797-4044. 내선번호 507)